

## 밤섬

밤섬은 서울의 한강, 그 중간 지점에 있다. 그곳에서 살던 주민들은 강제 이주되었고, 1968년 도시 개발을 위해 섬은 폭파되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연은 스스로 그곳을 복원하였다. '인간이 파괴하고 자연이 복원한 그 섬'은 우리에게 '공존의 가치'에 관해 묻고 있으며,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게끔 한다.

## Bam Islet

Bam Isle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Han River in Seoul. The people who lived there were forcibly moved out then It was blown up for urban development in 1968. Since then, it has been off-limits for a long time. During half a century nature has been restoring it by itself. *The Islet, which was destroyed by humans and restored by nature, asks us about the value of coexistence and makes us imagine the future of the city.*